

해군사관학교 제58기 졸업 및 임관식 치사

친애하는 해군사관학교 졸업생 여러분,

학부모님과 내외 귀빈 여러분,

졸업생 여러분은 지난 4년간 어려운 교육과정을 성공적으로 마치고 대한민국 해군장교로 임관되었습니다. 그동안 여러분이 쏟은 땀과 열정에 힘찬 박수를 보냅니다. 여러분의 졸업과 임관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이처럼 사기충천한 신입장교들을 길러 내신 학교장 윤연 제독을 비롯한 교직원 여러분의 노고를 높이 치하합니다. 사관생도와 해군장교들을 자녀로 두신 부모님, 얼마나 자랑스럽습니까? 귀한 아들딸들을 훌륭하게 키워 주신 부모님께 축하와 아울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해군장교 여러분, 그리고 국민 여러분,

우리의 안보환경은 하루가 다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주어진 환경에 수동적으로 대응하기보다는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자세로 계획을 세우고 변화를 관리해 나가야 합니다.

무엇보다 튼튼한 자주국방력을 갖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 군은 그동안 공고한 한·미 동맹의 기반 위에서 철통같은 안보태세를 확립해 왔습니다. 해마다 꽃게철만 되면 긴장이 감돌던 서해바다도 지난해에는 평온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북핵문제를 비롯한 안보현안들을 하나하나 차근차근 풀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한·미 동맹을 더욱 발전시켜 나가면서 우리의 안보를 우리가 주도하는 '협력적 자주국방'을 적극 실현해 나갈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육·해·공 3군의 균형발전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군 구조개편과 국방개혁을 통해서 '정예 정보·기술군'으로 육성해 나갈 것입니다. 군 스스로 지속적인 변화와 혁신을 통해서 이 일에 앞장서 주기 바랍니다.

주한미군 재배치 문제도 우리의 장기적인 구상과 능동적인 역할을 전제로 한·미간에 긴밀히 협의해 나가고 있습니다. 주한미군은 동북아의 균형과 안정에 기여하는 지렛대의 역할을 해 나가게 될 것입니다. 대북 억지력 측면에서는 우리 군이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할 것입니다.

나는 임기 내에 '협력적 자주국방'의 추진을 통해서 한반도 평화정착의 확고한 토대를 구축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신임장교 여러분, 해군장병 여러분,

우리의 바다는 세계에서 가장 역동적인 바다 가운데 하나입니다. 이 바다를 어떻게 지키고 관리하느냐에 우리의 미래가 달려 있습니다. 우리 해군은 해양방위 역량을 한층 강화해서 평화와 번영의 동북아 시대를 뒷받침해야 합니다.

나는 국군통수권자로서 우리의 바다를 수호할 해군력 강화사업을 적극 지원해 나갈 것입니다. 올해 '충무공 이순신함'을 실전에 배치하고 7천톤급 구축함을 비롯한 '기동함대' 건설도 내실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 해군을 '강력한 선진해군'으로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친애하는 졸업생 여러분,

여러분은 이제 바다의 용사가 되어 옥포만을 떠납니다. 여러분은 장보고 대사의 웅대한 꿈과 충무공 이순신 제독의 호국정신을 이어받은 해양한국의 후예들입니다. 또한 여러분의 선배 고(故) 이인호 소령과 윤영하 소령의 숭고한 희생정신을 배우고 본받은 해군장교들입니다.

우리의 바다를 수호하는 선봉에 서서 무적해군의 전통과 명예를 더욱 빛내 주기 바랍니다. 나와 우리 국민은 자랑스런 마음으로 여러분을 지켜볼 것입니다. 여러분의 앞날에 무운과 건승을 기원합니다. 저 또한 여러분과의 오늘 약속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